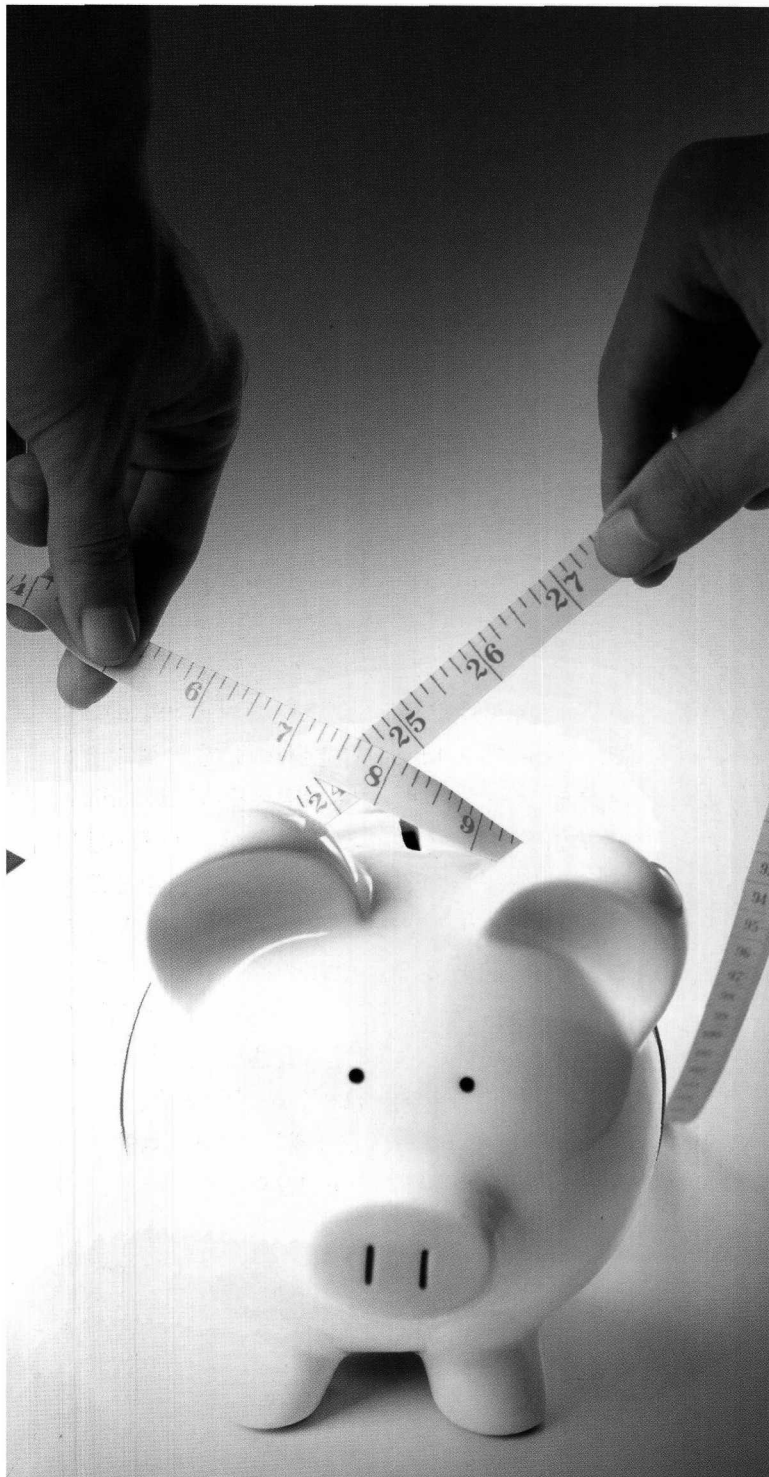


「돼지고기 저지방부위 소비의 건강편익」 연구개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배경

- 육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돼지고기의 부위별 소비 불균형은 심화됨에 따라 수급 불균형 발생
- 비선호 부위 소비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합리화 방안 마련 필요

○ 연구기관

- 총괄운영책임 : 농림수산물부(축산정책과)
- 연구운영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창의사업팀)
- 연구수행기관 : 강원대학교(신호중 교수)

○ 연구기간 : 2011. 10월 ~ 12월

○ 연구목표

- 돼지고기 소비의 건강편익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돼지고기 소비 형태 변화 유도 및 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 돼지고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부위별(고기량·저지방 부위 등) 돼지고기 소비의 건강편익 도출
 - 돼지고기 소비의 건강편익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소비 유도 및 저지방 부위의 소비 활성화 방안 도출

○ 연구결과의 활용

- 돼지고기 소비형태 분석을 통한 비선호 부위 소비 활성화 등 유통구조 합리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특정 부위 중심의 소비문화로 인한 가격 왜곡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돼지고기 소비패턴이 구이용 중심으로 삼겹살, 목살, 갈비부위의 소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위별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되어 오고 있다. 삼겹살 등 선호부위에 대한 국내 생산량은 소비량에 비해 부족하여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수입도 증가해야 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비가 부진한 앞다리살(전지), 뒷다리살(후지), 안심, 등심 등과 같은 저지방부위는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과잉생산됨으로써 재고량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국내 양돈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돼지고기 소비패턴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직화구이를 주로 하는 선호부위 소비로 인한 산업적·국민건강 복지적 측면에서의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돼지고기 저지방부위 소비로 인한 건강 편익을 도출하여 돼지고기 소비변화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학적 지표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돼지고기 저지방부위 소비의 건강편익을 도출하기 위해 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주)에 의뢰하여 온라인(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여 총 500부의 설문을 완료하였다. 제주도도를 제외한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평가법(DBDC-CVM)을 적용하여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였다.

돼지고기 저지방부위 구입시 건강편드 지불의사액(WTP)은 100g당 49원~790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를 2010년 기준 돼지고기 전체 소비량 943천 톤(농림수산식품부) 중 본 연구의 소비자조사에서 도출된 저지방부위 선호비율(19.9%)을 적용하여 돼지고기 저지방부위 소비에 대한 건강편익을 계산하면, 1년 동안 소비

자들이 저지방부위를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건강편익은 평균값을 적용할 경우 2,686억 7,500 만원~1조 4,842억 9,100 만원, 절단평균값을 적용할 경우 920억 6,400 만원~5,392억 3,000 만원으로 산출되었는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절단평균값인 920억 6,400 만원~5,392억 3,000 만원을 저지방부위 소비로 인한 연간 건강편익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양돈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저지방부위에 대한 소비 증진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소비자조사에서 저지방부위 소비 증진을 위해 '저지방부위 아점 홍보강화(32.0%)'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양한 요리법 보급(28.2%)', '저렴한 가격 유지(17.4%)', '품질고급화(13.0%)', '단체급식의 소비 독려(8.6%)' 순이었다. 저지방부위가 지방질이 적고 영양가가 높다는 것을 적극적인 홍보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요리법 개발로 가정에서나 식당, 음식점에서 저지방부위 요리방법들을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저지방부위를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건강편익이 1년 동안 920억 6,400 만원~5,392억 3,000 만원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함께 홍보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이 저지방부위에 대한 정보를 '지상파TV(48.1%)'와 '인터넷(28.1%)'을 통해 많이 얻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이용 할 필요가 있다.